

전남, 美 ‘태평양염전 수입금지’ 신속 해제 주력

‘태평양염전 파동’에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
예산 8000만원 확대...교육·심층상담 등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안 태평양염전 소금 수입차단 조치에 대해 전남도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신안 태평양염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천일염 제품에 대해 역류 및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인도보류 명령이 발동된 데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 조건, 임금 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양

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 사업자)과 해당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관련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에우 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CBP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들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한염전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과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해 실태조사 뿐 아니라 교육과 심층 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40명을 교육하고 올해는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지난해 염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인권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6월 전남도 인권

재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또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자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양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수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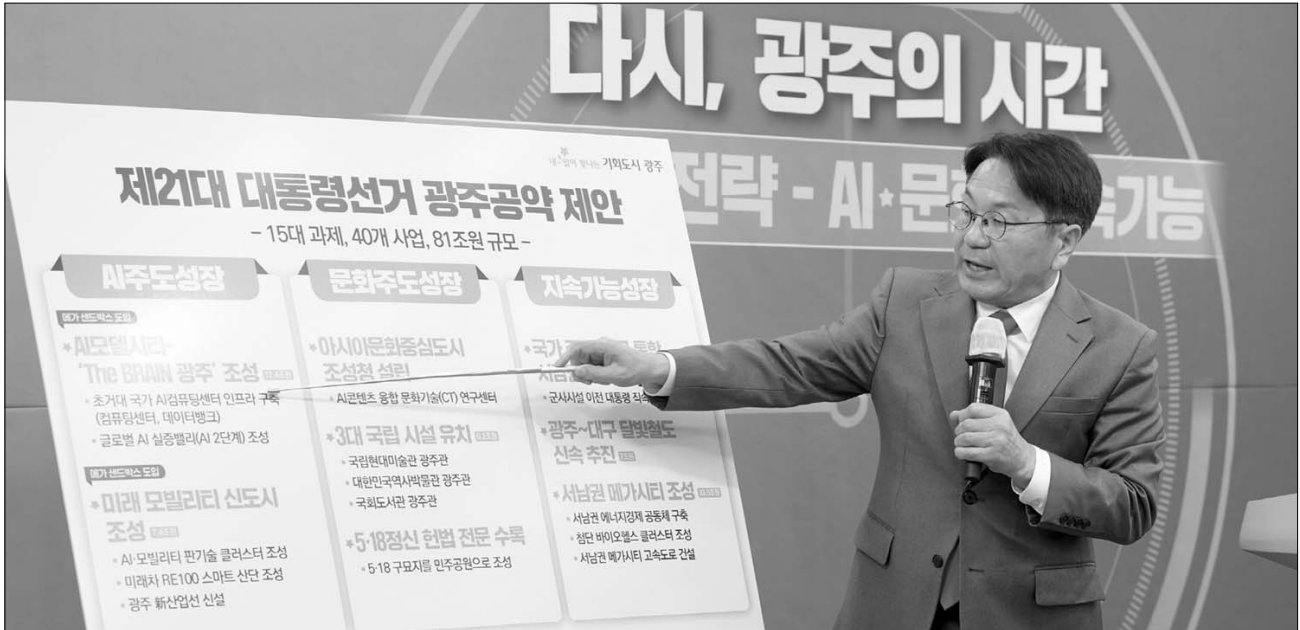
시청 야외 결혼식장 ‘빛의 정원’...9쌍 예약 예식장 비용 절감...여유롭게 결혼

광주시청 야외광장 ‘빛의 정원’이 예비부부의 결혼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 결혼식이 12일 예정돼 있는 등 4월 2쌍, 5월 2쌍, 9월 5쌍 등 총 9쌍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결혼 날짜에 맞춰 개성있는 예식을 준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결혼식 당일 야외웨딩 전문업체와 예식 상담을 진행하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8~10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빛의 정원’은 대관료 부담 없이 여유롭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야외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원, 실내는 시간당 1만원이며 냉난방비는 별도이다. 꽃장식·테이블·의

자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하며 광주시 에 문의할 경우 관련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식사는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국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인당 5000원이다. 완성품 위주의 추가 음식도 반입할 수 있으며 케이터링(뷔페)는 야외광장에서만 허용된다. 빛의 정원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면 이용할 수 있다. 예식장 이용은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가능하며, 1일 1예식을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예식 6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 광주시, 홍보·마케팅 활용

광주시가 지역의 매력이 담긴 ‘관광기념품’ (굿즈) 제작에 나선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매력을 담은 디자인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대형행사를 앞두고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선보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광주의 정체성과 기념성을 담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예상 판매가 5만원 이하 상품으로 제작이 가능한 아이디어이다. 참여자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디자인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상품화됐거나 다른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은 응모가 제한된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는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상징성·디자인·시장성·완성도 등을 평가해 금상 1점(100만원), 은상 1점(50만원), 동상 5점(각 20만원), 장려상 10점(각 10만원) 등 총 17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 제안발표
강기정 시장이 8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 제안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지능 기술로 보도자료 작성...광주 ‘AI 대변인’ 운영

챗 지피티 기반 기술 활용 자체 개발

광주시가 당직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당지기’에 이어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AI 대변인’을 도입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2호 직원 ‘AI 대변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8일 밝혔다. ‘AI 대변인’은 챗 지피티(Chat GPT)를 기반으로 광주시 보도자료 서식, 작성 기준, 표현 가이드를 반영해 핵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이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담당부서 공무원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챗 지피티(Chat GP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했다. 특히 유형별 보도자료 서식을 갖춰 다양한 보도자료 작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자동 수정 기능도 제공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AI 대변인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보도자

료 작성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직원의 당직 업무를 대신하는 ‘AI 당지기’를 운영했으며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전화를 응대(음성·보이는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 기관에 자동 연결하고 담당부서에 민원 내용을 전달한다. /김도기 기자

광주 시민참여예산, 오는 30일까지 접수

5억원 이하 생활형 사업·청년정책 제안

광주시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광주시 소관 사무인 시

정참여형, 청년참여형 등 두 가지이다. 시정참여형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5억원 이하 사업이다.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저출생 등 청년정책 사업으로 예산 제한 없이 제안을 받는다. 참여는 광주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시스템’과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진도·영암·장성·해남 노후 관광지 재생 나선다

전남도, 48억 투입...관광지별 특성 콘텐츠 보강

전남도의 올해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진도군과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 등 4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 20년 이상 노후 관광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자체 시책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관광학과 교수 등 외부 관광전문가 3명을 평가단으로 위촉, 노후시설 개·보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

러지는 시설 설치와 콘텐츠 보강을 중점으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진도 아리랑마을 ▲영암 마한문화공원 관광지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해남 우수영 관광지가 선정됐다. 개소당 12억 원씩, 48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 이선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가급적 미디어아트와 야간 경관 조명 등 인위적 시설물은 지양하고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과 콘텐츠를 보강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